



7 광주일보
제17431호 2006년 4월 25일 화요일

‘승진인사’ 뇌물 주고받은 혐의 전남경찰 간부 4명 기소

경찰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가 드러난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 4명이 기소됐다.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4일 부하 경찰관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과 L 총경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차장에게 뇌물을 상납한 전남경찰청 C 전 총경과 B 경정, S 경감 등 경찰관 간부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금품제공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위 L씨는 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 사이 ‘전별금’ 명목으로 부하 경찰관 2명으로부터 1천500만원, 광주 S측산 등 업체 2곳에서 2천만원, 윤상림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L 총경은 전남경찰청 과장 재직시절인 2005년을 전후해 B씨 등 소속 경찰 간부 3명으로부터 500만~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콜릿 제공’ 선거법 위반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24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출마 예정자인 자신의 남편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초콜릿 등을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인 정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시장을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행사’라는 행사를 기획·집행한 황모(여·46·5급) 담당 등 시청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시장 부인과 함께 식사한 뒤 음식값 27만원2천원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모(56) 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밸런타인 데이 때 초콜릿을 준 것인데 너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천현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발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천현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목포지역 당직자 L(67)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7일 목포시장 출마 후보 부인이 라면 상자에 달려를 담아 지역구 의원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모 인터넷 뉴스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성휴기자 lsh@kwangju.co.kr

손님보다 반가운 ‘생명의 배’

보트타고 점선 배 안에서 ‘007 진료’ 192개 섬 4,970명 주민들에 활력소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 전남도 병원선 128기급 ‘전남 511호’가 여수항을 빠져나갔다. 22일까지 5박6일 동안 여수와 완도 해역에 점점히 박힌 작은 섬 순회에 나선 것이다. 완도 백일도·비견도·허우도, 여수 소항간도·수항도·부도·나발도 등이 이번 진료대상이다.

여수를 출발한 지 4시간여, 완도군 금일면 허우도 앞 부두. “병원선 왔다~!” 주그리고 앉아 구멍난 전복막 식 망을 손질하고 있던 진애자(47)씨가 외쳤다.

마을 주민들이 병원선에서 보낸 보트를 타고 배에 올라왔다. 수심이 얇아 직접 접안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

의사 박인현(29)씨는 효과가 오래가는 것으로 알려진 ‘불이는 침’을 한 사람씩 처방했다. 주민들이 두 달에 한번 꼴로, 그나마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진료받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장비 30종에 의료진 16명

같은 시간, ‘전남 511호’ 안. 선장 박상숙(59)씨가 망원경으로 해안을 꼼

꼼히 살폈다. 폭풍주의보가 내리거나 파도가 3~4m를 넘으면 운항을 할 수 없고, 진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노인들은 병원선이 오면 손님이 온 것처럼 반가워하며 배에 오르세요. 의료문 섬 생활에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죠.”

환자를 안내하던 이숙연 간호사가 귀띔했다.

‘전남 511호’는 허우도를 지나, 두 번째 섬인 비견도에 정박했다. 비견도에서는 초등학생이 이빨 치료를 받았다. “숨을 돌고, 오늘은 반대쪽으로 밥을 먹어야 해” 치과의사 정옥철(29)씨가 당부하자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비견도를 떠난 배는 신도에 들러 환자를 보고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길을 재촉했다.

지난 2002년 23억원을 들여 건조한 ‘전남 511호’에는 내과·치과·한 의과 등 3개 진료과가 있다. 장비는 X-선 촬영기·골밀도 측정기 등 30여 종. 배에는 의사와 방사선사·임상병리사 1명씩, 선장·항해사·취사원 등을 합해 16명이 탄다. 지난해엔 연인원 7만1천433명을 진료했다.

내과·치과·한 의과 진료

의료진의 가장 큰 고통은 관리규정상 연간 180일(월 18일 이상 운항, 15일 이상 진료) 운항하는 격무. 하지만 170t 급 ‘전남 512호’와 함께 도내 유인도 192개 4천970여 명의 주민 건강을 책임진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두 척의 식구는 34명으로, 연간 운영비만 17억5천만원에 달한다.

전남도 보건환경과 장남주(56) 담당은 “운영비의 60%에 달하는 유류대가 매년 크게 올라 걱정”이라며 “고혈압·당뇨·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섬 주민들은 병원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해남 시화도와 신안 요령도 등 나이 든 할머니 한 분만 살고 있는 곳엔 제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완도 허우도 주민들이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보트에 오르자, 의료진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완도지역 고등학생 13명 폐결핵 감염

기숙사 생활...7명 격리

10년만에 첫 집단 발병

완도지역 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폐결핵 환자가 발생,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24일 완도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3명이 폐결핵에 감염됐으며, 이들 가운데 완치되거나 폐결핵균이 비활동성(음성)으로 확인된 학생 6명을 제외한 7명은 등교를 정지시키고, 가정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내에서 폐결핵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

한 것은 최근 10년 이래 처음이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학생은 모두 같은 반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최초로 감염된 남학생 2명이 나머지 11명에게 균을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학교 교직원 및 모든 기숙사 입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객담(가래)검

사를 했으나, 현재까지는 추가 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전남도 보건환경과장은 “현재 다른 학교에서도 폐결핵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10~20대 학생들이 PC방과 오락실 등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드나들면서 폐결핵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지난해의 경우 전남도내에서는 모두 774명의 폐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연제2차(동림)에
대주 피오레
1,300여 부대 중 353부대 353부대
문의 (062)366-4220

고이을 미끼 15억 가로챈 남매

광주 남부경찰은 24일 “펀드에 투자, 고이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3명에게 15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김모(32)씨와 김씨의 누나(33)에 대해 사기 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수억 원대 희귀 蘭 흠쳐 판 3명 ‘덜미’

○...광주 북부경찰은 23일 수억 원대의 희귀 난(蘭)을 흠쳐 판매한 김모(42)씨 등 3명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26일 새벽 1시에 나주시 다도면 남모(54)씨 집 인근 밭에서 홍화소심(紅花素心)·중투복색(中透復色)·주금소심(朱金素心) 등 난 500여 분(시가 3억240만원)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에서 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드러났는데, 이들이 훔친 난은 1분(5~6축)에 최소 700~900만 원에 달하는 고가품이라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우리가 만든 맛있는 것은
맛있는 비로 돌아올 너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F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F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F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